

마쓰무라 마치코(松村 真知子) 히쥬다이(日出生台)

큐슈 오오이타현 유후인정(九州 大分県 湯布院町)에서 온 마쓰무라입니다.

저희들 지역에서의 투쟁활동을 보고하겠습니다.

유후인은 온천과 지역 살리기 운동으로 잘 알려진, 지금은 연간 400 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오는 관광지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관광지라는 이미지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미군 기지의 마을’이라는 현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후인 분지의 한복판에 자위대 주둔지가 있고, 그곳에서 차로 10 분 정도 되는 곳에, 서일본(西日本) 최대의, 100년전부터 아시아 침략의 전선 기지로서 계속 해 온 히쥬다이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지역 중심에는 여러 군사 차량이 일상적으로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진이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읍장 선거 때, 매일 아침, 후보자와 운동원이 자위대 정문 앞에서 아침 7 시부터 부대에 들어가는 자위대 부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선거운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광경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지금은, 합병해서 유후시(由布市)가 되었습시다만,

구유후인정(旧湯布院町)에서는, 인구 12000 명, 유권자가 9000 명 중에, 자위대 관련자가 2000 표로 읍장 선거의 승부는, 자위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정 되어 왔습니다. 자위대는 지역의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히쥬다이 연습장에서는 1999 년부터 미해병대의 실탄 포격 연습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과거 7 회의 연습에서 알 수 있는 사실 1

해병대는 민간 공항을 사용하여 오키나와에서부터 옵니다.

공항에서의 이동이나 외출시에도 민간 버스 회사를 사용하여 이동합니다.

항만에 군사차량이나 155 밀리탄 등을 육지에 끌어 올리는 일에도 항만 노동자가 종사합니다.

경찰은 군사차량이나 무기를 나를 경우, 신호를 조작하여 미군을 최우선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탄약은 민간 운송 회사를 사용해 사세보(佐世保)에서 히쥬다이까지 운반 해 옵니다.

이와 같이, 실은 일본 본토에서의 미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군사에 관련없는 기관을 군사에 총동원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위대와의 일체화도 점점 진행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사 체제의 정비가 이 곳에서

착실하게 진척되고 있는 것입니다.

## 사실 2

미군 연습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 막대한 세금(SACO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자치 단체에는 연간 4 억엔이 들어 오는 등, 기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 사실 3

올해 들어서, 미군은, 155 밀리탄의 훈련 이외에도, 소총이나 기관총 훈련의 추가 실시를 요구 해 왔습니다. '155 밀리탄 한장'이라는 조건으로 시작 된 미군 훈련이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저희들은, 미해병대의 연습기간인 1 개월간, 연습장내를 볼 수 있는 발을 빌려 포탄수를 세고, 이상한 움직임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등, 히쥬다에서의 미해병대 훈련이 시작된 1999 년부터 감시를 쪽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습 종료 후 미군이 외출 할 때, 감시를 하면서, 직접 만든 부적 주머니 안에 소원을 빈 메시지를 넣어 직접 미군에게 전달합니다.

전단지든 직접 돌려도 그다지 받지를 않지만, 이 경우에는 대부분 받아서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부적의 내용의 영어)

May you never kill anyone, and never be killed by anyone.

당신이 누구를 죽이지도 않고 결코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도 않기를 기원하며.

May no one suffer from your military bases and exercises.

당신들의 군 기지와 훈련에 의해 누구도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기원하며.

May you go back to your hometown, and live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peacefully.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당신들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기원하며.

We wish one day you visit here, our hometown, not as a soldier in U.S. Military force which makes wars most in this world, but as an American citizen who loves nature and people here.

우리들은 당신이 이 세계에서 많은 수의 전쟁을 일으키는 아메리카 군의 병사로서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메리카 국민으로서 우리들의 지역을 방문하기를 기원하며.

Then we will welcome you as our friends.

그 때 우리들은 당신을 우리들의 친구로서 환영 할 것이다.

부적 속에 미군의 인권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연락처가 적힌 전단지 등을 접어 넣어 건네 주기도 합니다.

지금 까지 여러가지 운동을 전개 해 왔습니다만, 그 안에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히쥬다이에서의 미군 연습, 지역 합병 문제, 주민들은 처음에는 반대 하지만 국가라는 커다란 힘 앞에서 결국엔 눌러 꺾여 많은 주민들이 어느샌가 포기해 버리는

일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들은 이러한 미군 연습이나 지역 합병에 반대하는 운동속에서 ‘생활 터전을 지키자’라고 외쳐 왔습니다. 지금 되돌아 생각 해보면, 그 지켜야만 하는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우리들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스스로 되물어 보는 일을 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속에서 여러가지 의사를 저희들은 전달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기 이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의 상대방과 전달 하는 자신의 사이에서,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 될 수 있는 관계가 성립 되어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또, 전쟁이 없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들의 가까운 생활에서 부터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에서부터 시작 된 것이 ‘지역 살리기 NPO 바람의 터전(風の原っば a windy field)’입니다.

바람의 터전 활동이 목표하는 것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공생 사회를 만들고 그 지역이 미군 기지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또한 식량이나 에너지 등 다른 나라에서 뺏어 오지 않아도 좋은 체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중심을 생명을 키우는 먹거리와 농업에 두었습니다.

아이가모 농법(논농사에 있어서 살충제/제초제를 쓰지 않은 대신 오리를 이용해 제초/살충의 효과를 노리는, 무농약으로 쌀농사를 짓는 농법)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지키는 농법을 지역에 널리 알리고, 고령화로 인해 밭이나 논이 유지가 어렵게 된 농가를 돕는 체제를 지역 통화등을 이용해서 만들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지역 안에서 생산 판매하고 유후인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업을 계승해 갈만한 학생이나 어린이들에게 농업 체험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기 농업의 이해자를 초청하여 국제 교류나 국제 이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어른이나 어린이들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곳에서 자신들이 만든 안전한 식품을 사용한 식사회나 영화 상영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무언가 난처한 일이 생겼을 때는 서로가 도울 수 있도록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속에서 저희들이 전달 하고 싶은 의지가 제대로 상대방에게 전달 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석유나 원자력에 의지하지 않고, 지역 속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에너지 자급에

관하여 찾아 보려고 ‘에너지부회’를 세우고, 현재, 튀김용 기름을 사용 해 달리는 바이오 디젤 차의 연료가 되는 폐유를 회수 하는 운동도 지역 속에서 조금씩 시작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투쟁은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지역 속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안전 넷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을 재생산 하는 것으로 지금 국가에 의해 진행 되고 있는 약자를 버리는 행위에 대항해 나가려고 합니다.